

희귀식물 보전 · 서식지 복원 주력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대량증식법 개발 · 전시보전원 조성 · 사진전시회 개최 등 홍보 강화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최근 기후 변화 가속화에 따른 희귀식물 보전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생식물의 서식지 이동 추세가 심화되고, 식물의 자생 환경이 변화돼 멸종 또는 감소 위기에 처한 식물 종을 보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희귀식물(산림청 지정)을 대상으로 자생지 분포조사와 계절별 모니터링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종자, 껍질이(삼목), 조직배양 등을 통해 대량증식법을 개발하고, 현지 내외 보전 및 서식



노랑꽃말(멸종위기종)



청사조(멸종위기종)

지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

도내에는 150여 종류의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멸종위기종인 청사조와 미산나무, 위기종인 백양꽃과 물고사리에 대한 증식법을 개발,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했으며, 연차적으로 다른 희귀식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수목원(산림청) 및 도내

시·군 등과 협력 강화를 통해 희귀식물 자생지 생태환경개선과 서식지 복원사업을 추진, 2025년에는 도내 희귀식물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도민들에게 희귀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전시보전원 조성, 사진전시회 개최 및 책자 보급 등 홍보를 강화한다

는 방침이다.

대야수목원에 희귀식물 전시보전원을 조성했으며, 매년 희귀식물 사진 및 세밀화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에는 '전북의 희귀식물 도감', 2019년에는 '전북의 특산식물 도감'을 발간해 도내 산림 관련 부서와 학교, 전국 수목원·식물원에 보급하는 등 앞으로도 희귀식물에 대한 다방면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상국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희귀식물은 학술적·자원적으로 매우 큰 가치가 있다"며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란 없게

전해철 행안부 장관, 시스템 구축 현장점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스템 구축 상황 점검에 나섰다.

전 장관이 찾아가는 곳은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다. 장관 취임 후 첫 방문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제성의 전자세금신고시스템인 '홈택스', 행안부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 등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통합 데이터센터다. 현재 대전과 광주 2곳에 센터를 운영 중이며, 2022~2023년에는 공공기관까지 수용하는 클라우드 전용의 대구센터와 재해복구·백업 전용의 광주센터도 순차 개설할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이날 말 개시를 목표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에 관한 기술지원도 맡고 있다. 앞서 지난달 50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전점검 당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먹통 사태가 빚자 질병관리청에 3차례 긴급 방문해 시스템을 진단·개선한 바 있다. 현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직원이 질병청에 파견돼 민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 중이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백신 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을 포함한 질병청의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국가

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적기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40대 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임박했다"면서 "지난번과 같은 접속 지연으로 국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직 사회 재택근무·영상회의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증설 또는 개선해오고 있다. 재택근무·영상회의 시스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이용자가 5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사람의 분석 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보안체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보안 체계도 개발해 시범 적용 중이다. 2023년까지 4개 센터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전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IT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뉴시스

국제개발 협력 분야 활성화 기반 구축 '맞손'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전북대 국제개발협력원,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와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 이하 센터)와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원장 류경선, 이하 협력원)이 전북도의 국제개발 협력 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3일 협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전북도 국제개발 협력 분야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북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전북도가 참여가 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공동발굴 및 사업 운영을 위한 협업, ▲기타 전북도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기반 공고화에 필요한 분야 내 협업방안 강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영호 센터장은 "전북도는 KOICA 국가 공모사업 다수 대응·참여로 개발협력사업 수행 기반 마련에 착수한바, 지역 내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전북도 개발협력 분야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며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과 협업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시 돌봄인력 역할 '톡톡'

전북도,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에 321명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해소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전북도가 지원하고 있는 한시 돌봄인력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286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26개소에 한시적으로 각각 돌봄 인력 233명, 28명을 센터 수요에 따라 추가 배치하고, 6개월간 인건비 38억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한시 돌봄인력 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학원 등이 휴원함에 따라 발생한 돌봄 공백을 일시·긴급돌봄으로 대응해 돌봄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한시 돌봄인력의 주요 역할은 아동 돌봄, 프로그램 및 급·간식 보조, 아동 등·하원 지원 등이다.

특히, 이들은 기존 돌봄 종사자와 동

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및 유·초·중등교사 자격 등) 아동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도내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센터 내 방역소독이 강화되고, 휴원 시 부식 배달 등으로 업무가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숨통이 트였다"며 "추가 인력 지원으로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돼 아동, 학부모님들도 만족하신다"고 말했다.

신미에 도 여성청소년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군 및 센터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돌봄인력 한시 지원이 종사자들의 업무부담 완화와 아동의 안전한 보호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도 '대체휴일'

공휴일과 겹치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

글날 직후 월요일부터 반영된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

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개정안 골자는 3·1절 등 일부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한 적용 특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이뤄지게 된다. /뉴시스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